

지역사회 뿌리내리는 아동도서 전문서점

초방 여우오줌 동화나라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도 개발

“가장 낙후된 유통업종”이자 “책 유통문화의 싹틔줄”이라는 군소서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으로 ‘전문서점화’의 방법이 손꼽힌다. 전국의 5천여 서점 중 전문서점은 수십 곳에 불과하며 서울에 몰려 있어 서점업계에서는 전문서점화의 추세가 “바람직하나 아직은 요원한 목표”라고 말한다. 문화일보 93년 2월 2일자에 의하면, “위낙 자금회전이 약하고 마진이 작아 유능한 점포주들이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동도서 전문서점은 90년 크리스마스에 ‘초방’(392-0277)이 생긴 이래 꾸준한 양적 성장세를 보여 주목된다. 91년 10월에 개점한 ‘동화나라’(387-4155)와 92년 4월에 문을 연 ‘여우오줌’(0344-965-4453)이 바로 그것이다.

아동도서 전문서점 속속 문 열어

특히 ‘아동도서 전문서점의 시조’인 초방의 경우 지방에 속속 프랜차이즈점을 개설해 아직은 척박한 전문서점문화의 풍토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92년 8월 ‘강릉 초방’(0391-647-4559)에 이어 올해 2월부터 ‘대전 초방’(042-861-1669)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 남원(0671-626-2358), 전주(0652-222-2086), 목포(0631-79-6037) 지점을 개설할 예정인 것이다. 이들 ‘대리점’은 서울 ‘본점’과 같은 상호를 내걸고, 인테리어가 비슷하며, 본점에서 일괄 공급하는 유아·아동도서를 판매한다. 그밖에 춘천의 ‘동화나라’(0361-57-3728)는 ‘초방’을 통해 책을 공급받는 ‘자매점’으로서 5월 2일에 개

“책 유통문화의 싹틔줄”이자
 “낙후된 유통업종”이라는 군소서점.
 전문서점화가 사활의 급소로
 꼽히지만 “자금회전이 약하고
 마진이 작아” 아직은 요원한
 목표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동도서 전문서점은
 문화사업 차원의 서점론을
 개진하는 이들에 의해 꾸준한 양적
 성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점한다.

이처럼 아동도서 전문서점이 새싹 듯 돋고 있지만 자생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일부 지면에 “운영에 성공” 혹은 “1천만원의 투자 비용으로 높은 수익” 등으로 소개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는 “투자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의 순익을 올린다”는 게 그 현주소이다. 따라서 문화사업으로서의 서점론을 개진하는 서점주들의 ‘희생’이 아동도서 전문점을 국내 여타 전문서점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분야로 이끈 원동력인 셈이다.

그들이 어린이 책방을 열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동화나라 주인인 정혜림씨(31)는 대학 때 교육학을 전공하고 동화연구회에서 써클활동을 한 경험이 인연이 됐다. 춘천 동화나라의 김성란씨(27)는 도서관학을



“아동도서 전문서점의 선두주자”인 초방의 내부. 초방은 5월 중에 다섯 군데의 대리점을 개설한다.

전공했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 경영학 대학원을 마친 서울 초방 주인 신경숙씨(34)가 어린이 책방의 경영으로 진로가 구체화된 데는 현재 여섯살바기 쌍둥이인 ‘초롱’이와 ‘방실’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유학시절 “쌍둥이 두 딸과 곧잘 찾던 공립도서관에서 본 어린이책의 수준높은 그림과 내용, 그리고 다양함을 접하고 느낀 놀라움”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한다. 여우오줌의 권경미씨(29)는 전직 잡지사 기자인데, 그와 그의 아기 모두에게 기쁨을 줄 만한 일을 찾다가 서점을 열었다. 초방의 대전 ‘대리점장’인 이금자씨(37) 등도 비슷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도서의 질이 자생력 확보의 관건

그들의 ‘순수한 동기’는 서가에 진열된 도

서들을 일별해봐도 금세 확인된다. 아동도서의 베스트셀러를 독식하는 ‘명랑소설’과 전집류 등이 가급적 배제되고 “창의성 있는 글과 그림으로 어우러진 단행본” 위주이다. 초방의 신경숙씨의 도서선정 기준은 “믿을 만한 출판사인가, 그림은 제대로 그려졌는가, 읽어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이다. 따라서店內의 어떤 책을 골라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깊이있는 감동을 줄 만한 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한두 번 서점을 찾은 고객들은 대개 단골이 된다는 데서 찾아진다. 이들 서점은 단지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단순기능을 넘어서 “독서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능까지를 염두에 둔다. ‘독서회원제’ 등의 자체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초방’은 30여명의 ‘엄마’들로 구성된 ‘그

앤 밴크로프트 / 양역관 옮김 / 6,500원

20세기의 신비사상가들

〈나〉는 누구인가를 일깨우는 신비사상가 15인의 삶과 가르침



라마나 마하리쉬, 크리슈나무르티, 테야르 드 샤르댕, 엘런 왓츠, 구르지에프, 초감 트롱베, 마틴 부버, 루돌프 슈타이너, 카스타네다, 올더스 헉슬리, 마더 테레사, 다이온 포춘, 토머스 머턴, 팍 수부, 메허 바바. -이들 15인의 성자와 신비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르침의 핵심과 압축된 전기로 구성된 20세기의 정신세계 조감도.

정신세계사에서

어떤 책이 새로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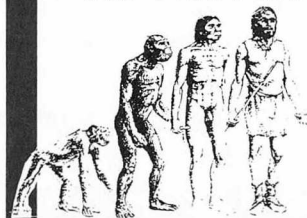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

헬렌 피셔 / 박매영 옮김 / 6,000원

성의 계약

인간의 진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

“당신은 대단한 부자인가? 유능한 커리어 우먼인가? 촉망받는 수재인가? 하지만 그런 것은 자연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섹시하다면 당신은 적자생존에 성공할 진화의 주역이다”



— ‘성의 계약(sex contract)’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간의 성행동, 가족, 사회조직, 언어, 감정의 기원. 여성 중심의 새로운 인류 진화론.

도서음성정보서비스 선정도서목록

책익해 조직위 8개분야 95종 정보제공

림책 연구회'를 운영한다. 지하 45평의 공간을 일러스트 상설전시장처럼 꾸며놓고, 세계 각국의 유명한 그림책을 모아 그곳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특히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했던 것도 초방의 큰 자랑이다. 신경숙씨는 올해 안으로 그림책 정보지를 만들어 엄마들이 자녀를 위한 책 선택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을 갖고 있다. 강릉 초방의 윤단균씨(33)는 국민학교 1학년생 다섯 명으로 구성된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그림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다.

'동화나라'와 '여우오줌'은 국민학생을 회원으로 모집해 책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한 번 대출된 책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됨은 물론이다. 동화나라는 입회비 1500원에 대여비 5백원을 받는 독서회원제를 작년 말부터 시작했다.

서점 주위에 대은·예일·대조 국민학교와 예일여중 등의 학생 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중 백권 이상 대출한 아이는 열 명. 지금은 학부모가 학생의 이름을 대고 빌려가는 경우도 많다고 정혜림씨는 전한다. 여우오줌에서는 연회비 2천원에 대여비 5백원을 받는다. 신도시인 원당에 자리하고 있어 아동보다는 유아독자층이 넓기 때문에 회원수는 150여명 정도이다.

책읽기를 통해 바른 인성 형성이라는 교육 효과를 목표로 삼는 이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많은 엄마들의 관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대비한다는 데 쏠려 있기 때문이

다. 그러한 엄마들은 다소 조악하더라도 값이싼 책을 뒤적거리는 것이다. 서점주들은 그래서 책방의 역할 중에 엄마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독서상담소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어린이 전문서점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서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해

현재 아동도서 전문서점을 운영하는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좋은 책'이 드물다는 것. 그 불만은 어린이교육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애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지만, 아동도서 전문서점의 자생력 확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경청을 요한다. 신경숙씨는 "좋은 책을 내면 엄마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출판사측의 선입견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국내 창작물에 대한 독창적이고도 꾸준한 기획투자만이 잠재적 어린이독자를 개발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출판계 내부의 자구책 이외에 '외부'의 정책적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불문학자이자 아동도서의 소비자이기도 한 김화영씨는 "아동도서에 관한 한 자본주의적 시장 조절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일종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아동서적 전문서점의 대표들은 좀더 명시적으로 "문화저변 확충의 차원에서 서점에 대한 세계혜택과 금융지원도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 김중식 기자

책익해조직위원회(위원장 김낙준)가 월2회 제공하는 도서음성정보서비스 선정도서 목록 5월 첫회분이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이용을 원하는 독자는 도서음성정보서비스 전화 700-8204를 통해 해당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자세한 안내를 제공받게 된다. 정보 제공기간은 15일까지.

1. 문학(1) 국내소설; ① 풍금이 있던 자리 ② 바다가 푸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③ 내일 울우리 ④ 애련의 초상 ⑤ 이별뒤의 이야기 ⑥ 겨울무지개 ⑦ 향운의 빛 ⑧ 달빛에 그네 타는 아버지 (2) 외국소설; ① 로빈슨크루소 ② 한밤중의 여우 ③ 해커의 꿈 ④ 축복의 기쁨 ⑤ 여자의 성 ⑥ 태아 ⑦ 사랑을 이는 남자 ⑧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⑨ 사랑은 혜성처럼 (3) 시와수필; ① 늙은 퇴폐 ② 아름다운 손 ③ 우리가 찾아내야 할 삶 ④ 당신은 누구십니까 ⑤ 끝없는 평원의 나라의 시들지 않는 말들 ⑥ 딱정벌레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별난 사색 ⑦ 뒤를 돌아보는 여자 ⑧ 실패할 수 있는 용기 ⑨ 밥상위의 작은 행복 (4) 문학 기타; ① 좋은 글, 잘된 문장은 이렇게 쓴다 ② 향가문학연구 ③ 한국한문학신강 ④ 중국문학개론 ⑤ 한국현대시론사 ⑥ 러시아문학의 이해 푸시킨과 고골 ⑦ 중국문학의 이해 ⑧ 우리 함께 서다 ⑨ 맥베스
2. 아동① 재미있는 속담 ② 비밀의 화원 ③ 방랑소년 차오름 ④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⑤ 인류의 긴여행 ⑥ 통일을 기다리는 느티나무 ⑦ 동식물도감 ⑧ 아이들 민속놀이 백가지 ⑨ 깔깔 컴퓨터 만화

3. 예술① 그 사람 장욱진 ② 재즈피아노 곡집 ③ 미술가 인명사전 ④ 어떤 피아니스트의 노트 ⑤ 실전 불링교본 ⑥ 한국명사기 ⑦ 아파트 인테리어 ⑧ 건축디자인 개념원전 ⑨ 메커닉 골프
4. 역사① 중국 근세 종교윤리와 상인정신 ② 재미있는 이조야사 이야기 ③ 문화부가 가려뽑은 인물이야기 5 ④ 조선시대 광업사 연구 ⑤ 인도민주주의운동사 ⑥ 중국의 신사 ⑦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문명 ⑧ 김영삼-한국현대사와 더불어 ⑨ 한국문화인류학
5. 사회과학① 신한국의 장래는 중소기업육성에 달려 있다 ② 21세기 한국국부론 ③ 신유통경영 이야기 ④ 정연태교수 유고집-영재아에게 도움을 ⑤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 ⑥ 중소기업의 성공조건 ⑦ 회의진행법 강의 ⑧ 정치와 인생 ⑨ 세계경제 100가지 상식
6. 과학기술① 미래를 지배할 신소재 ② 재미있는 이야기 과학사 ③ 복잡계로역학 및 가공론 ④ 아벨 스프레드시트 ⑤ PLC 이론과 실험 ⑥ 신비한 인체 창조집리 ⑦ 여성만의 병 ⑧ 생활과학 ⑨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
7. 종교① 살아있는 등불 ② 기독교 초대교회 형성사 ③ 원시불교 ④ 예술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⑤ 성령과 민중 ⑥ 훌륭한 상담자 ⑦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⑧ 기독교 영성의 뿌리와 열매들 ⑨ 율법과 복음
8. 철학① 대학생을 위한 철학에세이 ② 송명리학사 1 ③ 서양철학과 선 ④ 흠즈의 이해 ⑤ 랍비 가라사대 ⑥ 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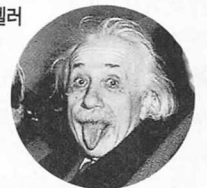
EINSTEIN'S DREAMS

아인슈타인의 꿈

앨런 라이트먼 · 권국성

“어떤 소설가도, 어떤 물리학자나 철학자도 시간의 본질과 그 열린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놀라운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뉴욕 타임즈 북 리뷰 베스트셀러
곧 나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한다.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 원처럼 흐를 수도 있고, 거꾸로 흐를 수도 있으며 또는 피코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
어쩌면 소설 속의 아인슈타인은 우리 세계의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꿈꾼 것인지도 모른다.

“이 작품은 지적 자극을 주는 동시에 감동적이며, 재미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여졌다.”

—살만 루시디

“이 소설은 엄격한 과학 지식과 자유분방한 환타지를 혼합한 아주 실험성이 강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작품이다.”

—뉴욕 타임즈 북 리뷰

■ 양장본/값 4,800원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